
부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구조와 취락유형 연구

黃大一 / (財)蔚山文化財研究院

目 次

I. 서론	IV. 취락유형별 기능과 특징
II. 유적 조사사례	V. 맺음말
III. 수혈주거지의 구조와 특징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I. 서 론

조선시대 촌락은 전통적 생활공동체의 최소 단위로 국가와 군현의 지배체계가 최종적으로 미치는 행정단위이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양반·상민·천민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무대였다.¹⁾ 조선시대 주거는 신분에 따라 상류의 양반주택과 중인 및 吏胥·軍校를 포괄하는 계층의 중류주택, 그리고 하층민의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 양반들의 주택 안에서 생활하는 率居奴婢가 아닌 집 밖에서 생활하는 外居奴婢의 집인 가랍집(호지집)이 있으나 이는 하층민의 주택과 같은 모습이다.²⁾

1)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 민족문화사. 17~18쪽.

2) 주남철, 2000,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371쪽.

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에서 확인되는 조선시대 수혈주거지는 가사규제³⁾와 같은 역사기록의 중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연구⁴⁾는 각 지역별로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에 대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확인되는 취락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영남지역 중에서 부산지역은 울산지역과 함께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조사 사례가 급증하고 취락의 형태가 온전하게 확인되는 예가 확인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내부구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수혈주거지의 형태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취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형태가 온전하게 확인되는 취락을 중심으로 기능과 성격, 특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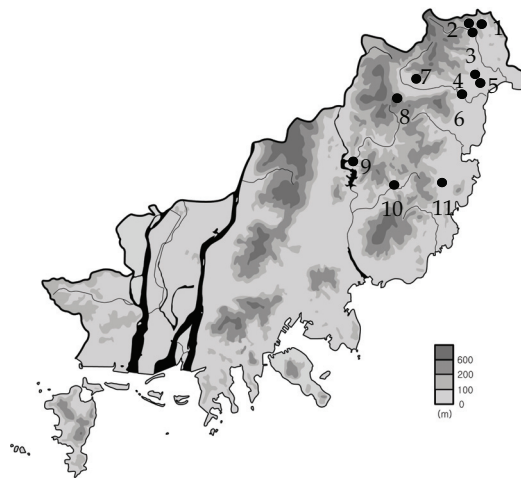
3)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높낮음을 막론하고 방이 100칸 넘는 가옥을 건축할 수가 없었다. 또한 어느 누구도 1만냥 이상을 들여 가옥을 건축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조항은 평민들에게 해당되는 제약일 뿐이었다.

4) 김성태·이병훈, 2004, 「史料를 통한 朝鮮時代 竪穴住居址의 검토」 『고고학』 제3권 제2호, 서울경기고고학회.
朴漢宰, 2007, 『조선시대 경기지방의 수혈주거지』, 詳明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吳俊赫, 2008, 『朝鮮時代 竪穴住居址에 대한 檢討-大田地域 調査資料를 中心으로』, 公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李璫馥, 2008, 「朝鮮時代 움집에 설치된 溫突의 調査法 一事例」 『湖西考古學』 第18輯.
黃大一, 2011, 『蔚山地域 朝鮮時代 竪穴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II. 유적 조사사례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수혈주거지는 유적에서 조선시대 수혈주거지가 중심이 되는 경우와 중심 유적은 다른 시대이나 조선시대 수혈주거지가 소수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부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 유적은 모두 13개소에서 92동이며, 그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유적의 분포



1:기장 명례리Ⅵ, 2:기장 명례리Ⅺ·Ⅻ, 3:기장 하장안1·2지구, 4:기장 반룡리Ⅱ, 5:기장 반룡리Ⅰ, 6:기장 좌동리, 7:기장 방곡리, 8:기장 연구리, 9:부산 오륜대, 10:부산 고촌, 11:기장 청강리

<표 1>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연번	유적명	유구 번호	입지	평면 형태	규모(cm)		난방 취사	출토유물	
					장	폭			
1	고촌 III지구	A-1	구릉사면	말각방형	365	(102)	IIa	옹기	
2		A-2	구릉사면	말각방형	(194)	(156)	IIa	분청사기, 백자	
3		A-3	구릉사면	말각방형	150	(37)	IIa	분청사기	
4	명례리 (울문연)	VI-2	구릉사면	원형	410	(275)	·	분청사기	
5		VI-4	구릉사면	원형	400	(200)	·	·	
6		VI-5	구릉사면	말각방형	580	(300)	IIa	토기병, 완	
7		VI-6	구릉사면	말각방형	380	(200)	IIa	·	
8		VI-8	구릉사면	원형	440	(350)	IIa	철기	
9		IX-1	구릉사면	말각방형	360	320	IIa	자기	
10		IX-3	구릉사면	말각방형	410	345	IIa	자기	
11		IX-18	구릉사면	말각방형	350	300	IIa	자기	
12		IX-19	구릉사면	말각방형	405	(170)	IIa	자기, 철기	
13		IX-22	구릉사면	방형	310	(157)	·	자기	
14		IX-24	구릉사면	방형	300	(270)	IIa	·	
15		명례리 (울산대)	XI-1	구릉사면	말각방형	(54)	(170)	·	백자
16			XI-3	구릉사면	말각방형	(273)	313	IIa	·
17			XI-4	구릉사면	말각방형	(127)	216	·	·
18	XI-5		구릉사면	말각방형	(210)	(236)	IIa	분청사기	
19	XI-7		구릉사면	말각방형	(142)	226	IIa	분청사기	
20	XI-9		구릉사면	말각방형	(223)	380	IIa	철괴	
21	XI-10		구릉사면	말각방형	(225)	(363)	IIa	·	
22	XI-11		구릉사면	방형	(232)	(363)	IIa	자기, 철도자	
23	XI-12		구릉사면	말각방형	(157)	342	IIa	·	
24	XI-15		구릉사면	말각방형	(240)	510	IIa	붓극	
25	XI-16		구릉사면	말각방형	316	322	IIa	자기	
26	XI-17		구릉사면	원형	(192)	351	IIa	자기, 어망추	
27	XI-19		구릉사면	말각방형	(480)	(130)	IIa	백자	
28	XI-20		구릉사면	방형	(190)	385	IIa	분청사기	
29	XI-21		구릉사면	말각방형	(182)	356	IIa	분청사기	
30	XI-22		구릉사면	말각방형	(315)	(215)	IIa	분청사기	
31	XI-24		구릉사면	방형	(199)	310	IIa	목제방망이, 철괴	
32	XI-25	구릉사면	말각방형	(308)	(145)	IIa	분청사기		

부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구조와 취락유형 연구 / 5

33	명례리 (울산대)	XI-26	구릉사면	말각방형	(377)	(138)	II a	분청사기, 기와
34		XI-27	구릉사면	말각방형	382	(255)	II a	분청사기
35		XI-28	구릉사면	말각방형	(92)	260	·	·
36		XII-3	구릉사면	말각방형	820	(370)	II a	기와
37		XII-6	구릉사면	말각방형	560	362	II a	토기병
38		XII-9	구릉사면	말각방형	480	(144)	II a	·
39	명례리 하장안 1,2	1	구릉사면	방형	316	220	·	자기, 옹기
40		2	구릉사면	원형	442	422	·	자기
41		3	구릉사면	원형	392	344	II a	옹기
42		4	구릉사면	방형	198	196	·	자기
43		5	구릉사면	원형	300	278	II a	자기
44		6	구릉사면	말각방형	262	(178)	II a	자기
45		7	구릉사면	방형	230	190	·	분청사기, 백자
46		8	구릉사면	·	346	(204)	II a	자기, 붓극
47		9	구릉사면	·	232	(148)	·	·
48		10	구릉사면	·	486	(212)	·	·
49		11	구릉사면	말각방형	204	184	·	자기, 붓극
50		12	구릉사면	원형	430	(158)	II a	자기, 옹기
51		13	구릉사면	방형	163	150	III	자기
52		14	구릉사면	원형	389	336	·	자기, 기와
53		15	구릉사면	타원형	196	131	II a	자기, 기와
54		16	구릉사면	부정형	357	220	II a	자기, 철기
55		17	구릉사면	말각방형	419	297	·	·
56		18	구릉사면	말각방형	204	209	·	자기
57		19	구릉사면	방형	231	213	·	자기
58		20	구릉사면	방형	332	287	·	자기
59		21	구릉사면	말각방형	493	447	I a	자기
60		22	구릉사면	말각방형	341	347	·	·
61		23	구릉사면	방형	350	198	I a	자기
62		24	구릉사면	말각방형	555	232	·	·
63	반룡리 I	1	구릉사면	말각방형	484	(345)	II a	분청사기
64		2	구릉사면	말각방형	420	350	II a	분청사기, 백자
65	반룡리 II	1	구릉사면	말각방형	340	(252)	II a	·
66		2	구릉사면	말각방형	400	325	II a	·
67		3	구릉사면	방형	272	250	II a	분청사기, 기와

68	반룡리 II	4	구룡사면	말각방형	486	(200)	II a	·
69		5	구룡사면	말각방형	382	280	II a	분청사기
70		6	구룡사면	말각방형	524	(244)	II a	분청사기
71		7	구룡사면	원형	284	244	·	분청사기, 백자
72		8	구룡사면	말각방형	404	310	II a	기와
73		9	구룡사면	부정형	552	(296)	II a	·
74	방곡리	가-1	구룡사면	장방형	504	·	·	·
75		가-2	구룡사면	원형	414	·	II a	분청사기, 옹기
76		가-3	구룡사면	방형	300	·	·	·
77		가-4	구룡사면	말각방형	330	·	II b	·
78		가-5	구룡사면	타원형	396	310	·	·
79		가-6	구룡사면	말각방형	480	·	II a	·
80		가-7	구룡사면	방형	280	252	II a	기와
81		가-8	구룡사면	장방형	330	232	I a	·
82		가-9	구룡사면	원형	382	·	II b	·
83		가-10	구룡사면	?	·	·	II a	분청사기
84	연구리	1	구룡사면	타원형	280	(132)	II a	분청사기, 옹기
85		2	구룡사면	말각방형	415	(140)	II b	분청사기
86		3	구룡사면	타원형	(339)	(123)	II a	분청사기
87	좌동리	가-1	구룡사면	타원형	(338)	292	·	분청사기, 백자
88		가-2	구룡사면	원형	360	(310)	·	자기, 청동방울
89	청강리	20	구룡사면	말각방형	333	(225)	II b	·
90		21	구룡사면	말각방형	400	(200)	II a	분청사기, 백자
91		22	구룡사면	말각방형	270	(98)	II a	·
92	부산 오륜대	1	구룡사면	타원형	470	335	II b	백자, 기와

Ⅲ. 수혈주거지의 구조와 특징

부산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조선시대 수혈주거지는 92동이다. 이 중 평면형태와 면적, 내부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혈주거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방법은 수혈주거지 구

조의 속성을 형식(型式 : type)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류하고자 한다.

1. 구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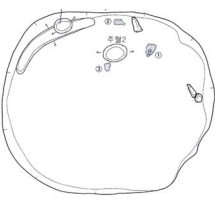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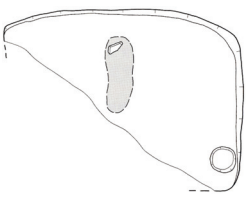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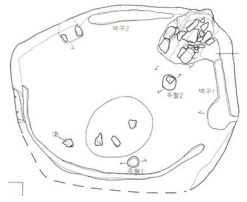
1) 평면형태

부산지역에서 확인되는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타원형·방형·말각방형·부정형 등이 확인된다.

<표 2> 유적별 수혈주거지 평면형태

연번	유적명	평면형태					합계
		원형계		방형계			
		원형	타원형	방형	장방형	말각방형	
1	부산 고촌Ⅲ지구					3	3
2	기장 명례리Ⅵ	3				2	5
3	기장 명례리Ⅸ			2		4	6
4	기장 명례리Ⅺ	1		3		17	21
5	기장 명례리Ⅻ					3	3
6	기장 명례리 하장안1,2	5	1	7		7	20
7	기장 반룡리Ⅰ					2	2
8	기장 반룡리Ⅱ	1		1		6	8
9	기장 방곡리	2		2	2	2	8
10	기장 연구리		2			1	3
11	기장 좌동리	1	1				2
12	기장 청강리					3	3
13	부산 오류대		1				1
평면형태 별 합계		13	5	15	2	50	85

<그림 2> 평면형태 분류

속성		분류	유구
원형계	원형		기장 반룡리Ⅱ 7호
	타원형		부산 오륜대 1호
방형계	방형		기장 방곡리 가-7호
	장방형		기장 방곡리 가-8호
	말각 방형		기장 반룡리 I 2호

평면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은 주거지의 장단축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거지가 조사된 유적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⁵⁾

<표 3> 평면형태 비율

유구 수	18	67
%	21	79
100%		
75%		
50%		
25%		
	원형계	방형계

따라서 본고에서는 평면 형태를 확연히 식별할 수 있는 원형계(원형, 타원형)와 방형계(방형, 장방형, 말각방형) 2가지 형태로 분류하고자 한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 비율을 나타낸 것이 <표 3>과 같다. <표 3>을 통해 살펴보면 평면형태 비율에 있어서 원형계 주거지가 21%, 방형계 주거지가 79%를 차지한다.

취락 내에서 평면형태의 비율이 하나의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취락과 2가지 유형이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는 취락의 모습을 보인다.

2)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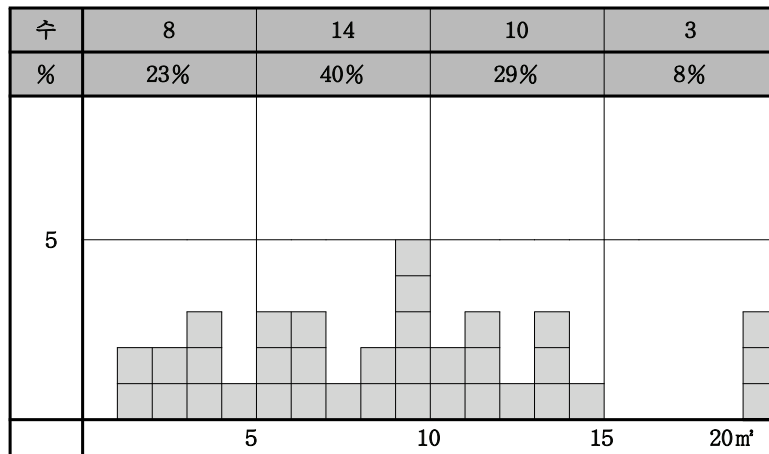
수혈주거지의 면적은 취락 내에서 주거지의 구성원 수나 거주자 신분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의 면적을 통하여 구성원의 신분과 범위를 추론하거나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5) 취락연구회, 2004, 『堅穴建物址 調査方法論』, 춘추각, 152쪽.

수혈주거지 면적에서 5㎡ 당 1명으로 거주인원을 산출⁶⁾하였을 경우 1명이 거주하는 5㎡ 미만을 소형, 2명이 거주하는 5~10㎡를 중소형, 2~3명이 거주하는 10~15㎡를 중대형, 3~5명이 거주하는 15~25㎡를 대형, 5명 이상 거주하는 25㎡ 이상을 초대형으로 분류하였다.

부산지역에서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혈주거지는 총 35동이며, 면적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 <표 4>와 같다.

<표 4> 수혈주거지 면적 비율



<표 4>를 통해 살펴보면 소형이 23%(8동), 중소형이 40%(14동), 중대형이 29%(10동), 대형이 8%(3동) 정도 차지한다. 수혈주거지의 면적에서 5~15㎡의 비율이 전체에서 69%(24기)를 차지한다.

6) 김정기, 1974, 「한국 수혈주거지 考」, 『고고학 제3집』, 한국고고학회.
 주거 인원에 대한 주장은 학자들 간의 견해에 다소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1인당 소요 면적을 5㎡로 정하고 거주 인원을 계산하였다.

지하여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25㎡ 이상의 초대형 수혈주거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문헌자료에서 土室의 규모가 한 칸 또는 두 칸인 점과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3) 난방·취사시설⁷⁾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내부구조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난방·취사시설의 다양화라 할 수 있다. 난방·취사시설의 변화와 발달은 주거문화에 있어서 단순히 난방시설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간구성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요한 속성이다.⁸⁾ 부산지역 난방·취사시설은 축조형태와 위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I 식

爐가 수혈주거지 床面에 평면형태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된 형태이며, 주거지 중앙 또는 중앙에서 좌·우로 조금씩 치우친 곳에 위치한다. 노의 축조형태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7) 난방·취사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며, 연구자들마다 분류 기준에 따라 용어에 있어서 차이점이 보인다. 이경복은 온돌시설의 유무에 따라 크게 I·II형으로 구분하였다. 임형호·정여선은 I형(무시설), II형(화덕시설), III형(부뚜막시설), IV형(온돌시설) 등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박한재는 A형(연소부+온돌), B형(화덕시설), C형(단순노지)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오승규는 부뚜막시설과 구들시설로 구분하였다.

필자는 용도가 확실한 시설은 용도에 따른 명칭을 따랐으며, 용도가 불분명한 시설은 형태를 기준으로 한 명칭을 따랐다. 특히 벽로의 경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난방·취사시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되며, 설치된 위치나 형태를 기준으로 벽로로 명명하였다.

8) 강영환, 1999,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27쪽.

I a식은 수혈주거지 내부의 床面을 아무런 시설 없이 그대로 이용한 床面式 爐이다. 이러한 형태의 爐는 기능적으로 보면 무 시설식이므로 취사보다는 난방과 조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I b식은 수혈주거지 내부의 상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한 竪穴式 爐이며, 내부에 솥을 걸기 위한 붓돌이나 붓돌을 세웠던 홈이 양쪽 가장자리에서 확인된다. 爐 내부에 被熱되어 소결된 흔적은 바닥과 벽면에서 확인되며, 野外 爐와 비교해 볼 때 평면형태와 기능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기능적으로 보면 I a식과는 달리 내부시설의 존재나 구조로 볼 때 취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지역 수혈주거지에서는 I b식의 노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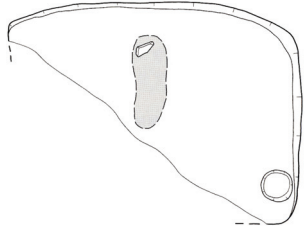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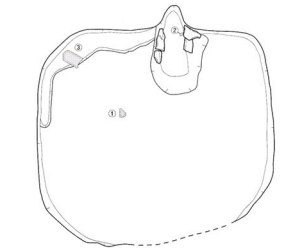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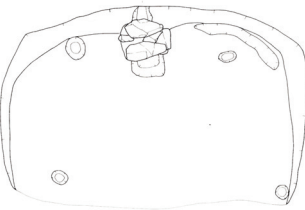

(2) II 식

爐가 수혈주거지 내부 벽면에 붙여서 설치된 형태이다. 壁爐(黃大一 2010)의 위치와 축조형태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II a식은 벽로를 수혈주거지 내부 벽면에 붙여서 설치하였으며, 연도부의 평면형태가 '∩'모양으로 주거지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의 벽로 가장 자리에 붓돌을 세우고 그 위에 이맛돌을 덮어 연도부와 연결한 형태이다.

9) 수혈주거지 내부에서 I b식의 노가 단독으로 확인되는 예는 없지만, II 식과 함께 복수로 설치된 경우는 확인된다.

<그림 3> 난방·취사시설의 분류

속성	분류	유구	
I a		기장 방곡리 가-8호	
II	II a		기장 반룡리 II 3호
	II b		기장 청강리 20호
III		기장 명폐리 하장안 1,2 13호	

Ⅱb식은 벽로를 수혈주거지 내부 벽면 또는 벽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벽면과 직교하여 설치하였으며, 연도부는 주거지 외부로 돌출되어 있지 않다. 벽로 내부 축조수법은 Ⅱa식과 동일하다.

<그림 4> 복수 노의 형태

	분류	유구
Ⅱ식 2~4개		기장 반룡리Ⅱ 6호
		기장 방곡리 가-6호
Ⅱ식 + I a		기장 반룡리 I 2호
Ⅱ식 + I b		기장 반룡리 I 1호

이러한 형태의 벽로는 기능적으로 보면 벽로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취사를 하 <그림 4> 복수 노의 형태 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취사보다는 난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혈주거지 내부에서 <그림 4>와 같이 복수의 노가 설치된 예도 있다. 복수의 노는 Ⅱ식의 수가 2~4개가 설치된 형태와 Ⅱ식 + I a 또는 I b이 설치된 형태로 구분되어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는 기능적으로 볼 때 난방·취사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3) Ⅲ식

수혈주거지 내부에서 濶突(구들)이 확인되는 형태이다. 온돌은

부뚜막과 고래의 형태에 따라 ‘一’자·‘ㄱ’자·‘ㄷ’자 등으로 분류되며, 고래의 형태에 따라 외줄과 다줄로 분류한다. 부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서는 온돌이 확인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온돌이 확인되는 수혈주거지를 Ⅲ식으로 분류한다.

<그림 5> 난방·취사시설의 비율

유구 수	3	62	1
%	4	94	2
100%			
75%			
50%			
25%			
	I 식	II 식	III 식

위에서 분류된 <표 5>

난방·취사시설 비율
난방·취사시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표 5>와 같다.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난방·취사시설이 확인되는 전체 66동 중에서 I 식이 3동(4%), II 식이 62동(94%), III 식이 1동(2%) 확인된다. 3가지 형식

중에서 II 식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내 난방·취사시설의 전형적인 모습은 II 식(벽로)의 형태라 할 수 있다.

2. 상관관계 검토

수혈주거지의 구조에서 의미있는 속성으로 파악된 평면형태, 면적, 난방·취사시설 등의 분석을 기초로 각 속성간의 상관관계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난방·취사시설의 형식 중에서 I b 식은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증가하면 추후에 검토하겠다.

1) 평면형태와 면적과의 관계

평면형태와 면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양자의 조합상을 제시한 것이 <표 6>과 같다.

<표 6> 평면형태와 면적(주거지 수량)

면적 \ 평면형태	면적	소형	중소형	중대형	대형
원형계		1	3	5	
방형계		7	6	10	2

평면형태 원형계는 면적 소형, 중소형, 중대형에서 확인되며, 대형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방형계는 면적 소형, 중소형, 중대형, 대형 등 모든 면적에서 확인된다.

원형계, 방형계 수혈주거지 구분 없이 면적 중대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 평면형태와 난방·취사시설과의 관계

평면형태와 난방·취사시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양자의 조합상을 제시한 것이 <표 7>과 같다.

<표 7> 평면형태와 난방·취사시설(주거지 수량)

평면형태 \ 난방·취사시설	I a	II a	II b	III
원형계		9	2	
방형계	3	44	3	1

평면형태 원형계는 난방·취사시설 II a, II b식에서만 확인되며, 방형계는 I a, II a, II b, III식 등 모든 형식에서 확인된다.

평면형태 원형계는 난방·취사시설 II a식에서 82%, 방형계는 II a식에서 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난방·취사시설 II a식(벽로)은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있어서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평면형태와 상관 없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난방·취사시설과 면적과의 관계

난방·취사시설과 면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양자의 조합상을 제시한 것이 <표 8>과 같다.

난방·취사시설 I a식은 면적 소형과 중소형에서 확인되며, II a식은 모든 면적에서 확인되며, II b식은 대형에서 확인되며, III 식은 소형에서 확인된다.

<표 8> 난방·취사시설과 면적(주거지 수량)

난방·취사시설 \ 면적	소형	중소형	중대형	대형
I a	1	1		
II a	1	4	9	1
II b				1
III	1			

난방·취사시설 I 식은 구조나 기능적으로 볼 때 소형~중대형 수혈주거지까지만 한정되어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II 식은 모든 면적에서 설치되어 있지만 중소형과 중대형에 집중하여 분포한다. III 식은 현재 소형에서만 확인되지만 구조적으로 I 식과 동일한 면적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3. 특 징

1) 구조와 입지

부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내부 구조의 분석을 통해 수혈주거지의 전형적인 모습은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면적은 2~3명이 거주할 수 있는 5~15㎡, 난방·취사시설은 벽로의 특징을 가진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평면형태 방형주거지와 난방·취사시설 벽로의 형태는 타지역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복수 노는 부산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입지는 현재까지 구릉부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입지에 대한 편중 현상은 층적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IV. 취락유형별 기능과 특징

본 장에서는 부산지역에서 확인되는 조선시대 취락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취락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한 후, 분류된 취락유형별 기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취락의 유형분류

조선시대 주거형태는 신분에 따라 상류의 양반주택과 중인 및 吏胥·軍校를 포괄하는 계층의 중류주택, 그리고 하층민의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양반주택은 거대한 행랑채와 솟을대문, 그리고 여러 채의 건물과 많은 공간으로 분화되는 것이 특징이며, 입면의 의장적 고급성, 기와지붕이 사용된다. 중류주택은 도시형 한옥(혹은 개량한옥)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양반주택에 비해 작은 규모와 생산공간이 배제되고 구조부재나 기와 등 양반주택의 건축요소를 부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층민 주택은 생산공간과 주거공간의 일체화가 가장 큰 특징이며, 초가지붕이 사용된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에서 확인되는 조선시대 주거형태는 수혈주거지, 지상건물지¹⁰⁾로 분류된다. 부산지역 조선시대 취락에서는 주거형태별로 다양하게 확인되며,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수혈주거지만 확인되는 취락, 둘째, 수혈주거지와 지면·고상건물지 모두 확인되는 취락, 셋째,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가 확인되는 취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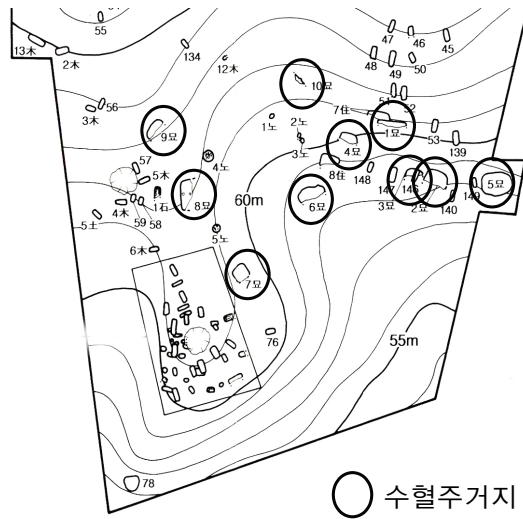
10) 황대일·최수형, 2010, 「지면식 지상건물지의 공간구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울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제8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130쪽.

1) 수혈주거지 단독취락

취락에서 수혈주거지만 확인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기장 방곡리, 기장 연구리, 기장 좌동리, 기장 청강리유적 등이 있다.

이러한 취락의 특징은 수혈주거지 5~10동 정도 분포하는 소규모 취락이다. 타지역에서는 40동 이상 분포하는 대규모 취락이 확인되지만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는 소규모 취락만 확인된다.

<그림 5> 기장 방곡리유적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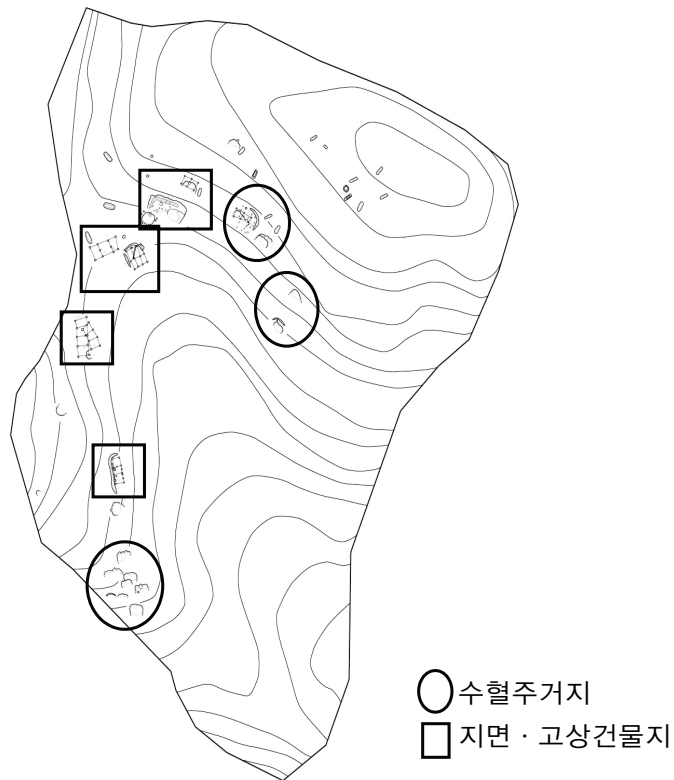


2) 수혈주거지+지면·고상건물지

취락에서 수혈주거지와 지면·고상건물지가 모두 확인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기장 명례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VI·XI·XIII지구, 하장안 1·2지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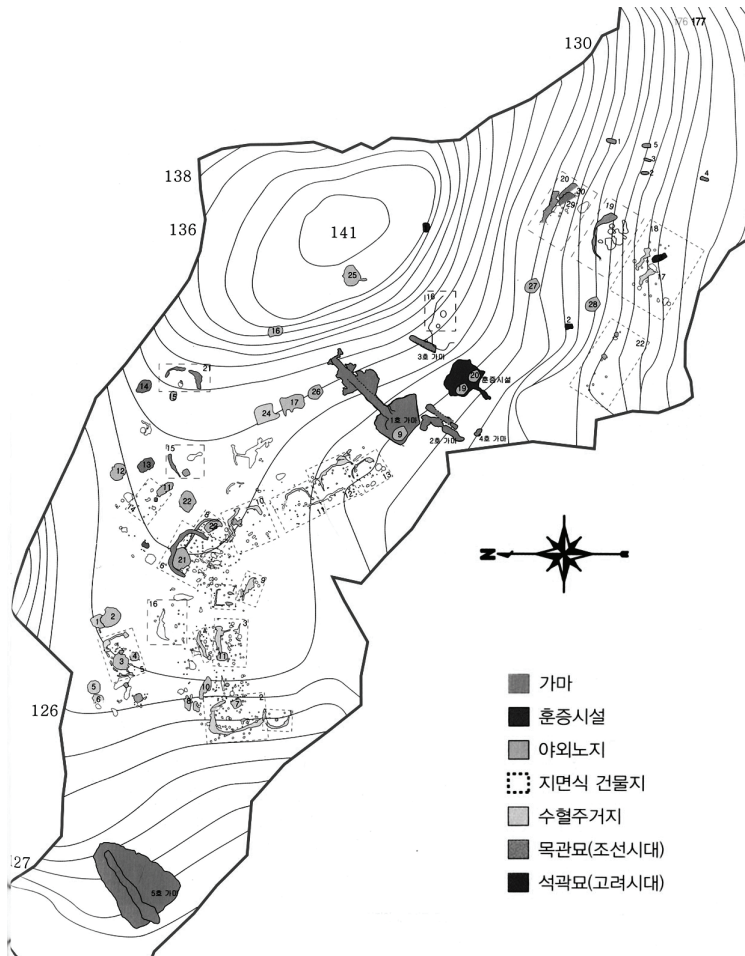
이러한 취락의 특징은 수혈주거지 10~30동, 지면·고상건물지 5~10동 정도 분포하는 대규모 취락으로 몇 개의 그룹으로 확인되며, 울산지역¹¹⁾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대규모 취락이 조사되었다.

<그림 6> 기장 명례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XI지구 유구배치도



11)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 혁신도시 2구역 1차 유적 1차 발굴조사 지도 위원회자료』.

<그림 7> 기장 명례산업단지 조성부지내 하장안 1·2지구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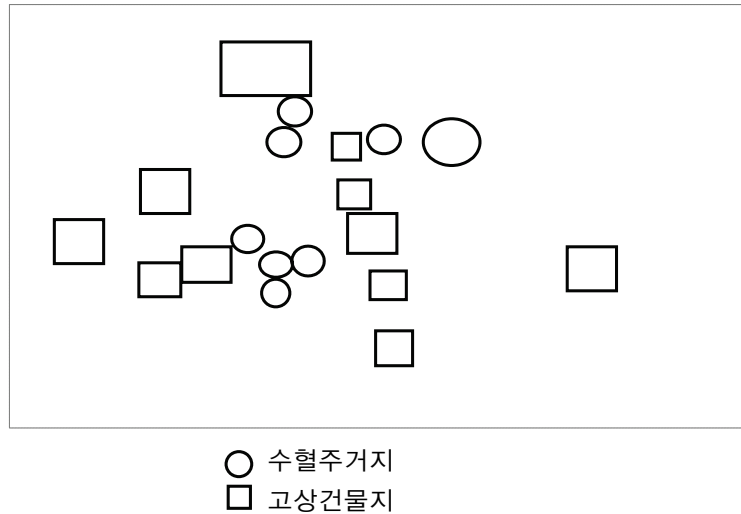


3) 수혈주거지+고상건물지

취락에서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가 확인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기장 반룡리Ⅱ유적이 있다.

이러한 취락의 특징은 모든 주거형태가 확인된 취락보다는 규모가 작으며, 몇 개의 그룹으로 확인된다. 그룹에서는 주거형태 별로 분리되어 분포한다.

<그림 8> 기장 반룡리Ⅱ유적 유구배치도



2. 유형별 기능

1) 수혈주거지 단독취락

수혈주거지만 확인되는 취락과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가 함께 확인되는 취락은 하층민의 주거와 묘막지의 기능을 위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혈주거지의 사용계층은 일반적으로 瓦家와 草家보다는 신분

이 낮은 하층민(빈민층)의 주거형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수혈주거지 단독으로 확인된 취락은 하층민들이 집단으로 마을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취락 내에서 분묘와 함께 확인되는 수혈주거지는 분묘와의 위치, 거리, 출토유물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묘막지로서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

2) 수혈주거지+지면·고상건물지

수혈주거지와 지면·고상건물지가 함께 확인되는 취락은 생산과 관련된 공방지 또는 역이 위치한 곳에 형성된 특수목적의 취락으로 생각된다.

기장 명례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XIII지구, 하장안 1·2지구는 분청사기 생산유적으로 가마, 훈증시설, 공방지와 공인들이 거주한 수혈주거지, 지면건물지로 이루어졌다. 특히 수혈주거지와 지면건물지 내부에서는 분청사기 생산과 관련된 녹로혈이 확인되었으며, 녹로의 부속구인 갓모, 백토 등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취락 내에서 생산과 관련된 유구나 유물이 출토된다면 수혈주거지와 지면·고상건물지는 공방지로서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

3) 수혈주거지+고상건물지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가 확인되는 취락은 고상건물지의 기능을 창고 또는 계절성 주거 등으로 본다면, 수혈주거지와 함께 임시로 거주할 목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내부구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수혈주거지의 형태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취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형태가 온전하게 확인되는 취락을 중심으로 기능과 특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논지 전개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리비약과 단점이 있었다. 형태가 온전하게 확인되는 취락이 많지 않은 것과 수혈주거지의 분포가 기장지역에 집중 되는 것이 부산지역 조선시대 취락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균형있는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부산지역 조선시대 취락과 관련된 자료가 증가한다면 주변지역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취락의 다양한 모습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세밀하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참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

- 강영환, 1999,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 경기문화재단, 2001, 『수정국역화성성역의궤』.
- 김남응, 2004, 『문헌과 유적으로 본 구들이야기 온돌이야기』, 단국대학교출판부.
- 김성태·이병훈, 2004, 「史料를 통한 朝鮮時代 豎穴住居址의 검토」 『고고학』 제3권 제2호, 서울경기고고학회.

- 김정기, 1974, 「한국 수혈주거지考」 『고고학 제3집』, 한국고고학회.
- 朴漢宰, 2007, 『조선시대 경기지방의 수혈주거지』, 祥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 오승규, 2011, 『중부지방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성격 검토』,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吳煥赫, 2008a, 『朝鮮時代 豎穴住居址에 대한 檢討-大田地域 調査資料를 中心으로』,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吳煥赫, 2008b, 「大田地域 朝鮮時代 豎穴住居址에 대한 一研究」 『研究論文集』 第4號, 中央文化財研究院.
- 이경복·전경아, 2004, 「조선시대 움집과 그 안에 살던 사람들」 『백산학보』 제 69호.
- 이경복, 2007, 「조선시대 움집과 온돌의 도입」 『백산학보』 제79호.
- 이경복, 2008, 「조선시대 움집에 설치된 온돌의 조사법 일사례」 『호서고고학』 제18집.
-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 임영호·정여선, 2007,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연구」 『아외고고학』 제3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주남철, 2000,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 취락연구회, 2004, 『豎穴建物址 調査方法論』, 춘추각.
- 黃大一, 2010a, 「蔚山地域 朝鮮時代 豎穴住居址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第 52輯.
- 황대일·최수형, 2010, 「지면식 지상건물지의 공간구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울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아외고고학』 제8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黃大一, 2011a, 『蔚山地域 朝鮮時代 豎穴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황대일, 2012b, 「강원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구조와 지역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 『고고학』 제11권 제2호, 중부고고학회.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9, 『古村遺蹟(Ⅲ地區)』.
- 慶南文化財研究院, 2010, 『기장 연구리 고분군』.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9, 『機張 盤龍里遺蹟 I』.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機張 盤龍里遺蹟 II』.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8, 『機張 清江里古墳群』.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9, 『釜山 五倫臺遺蹟』.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2011, 『기장 명례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울산대학교박물관, 2007, 『機張 芳谷里遺蹟』.
- 울산대학교박물관, 2011, 『기장 명례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Ⅹ·Ⅺ·Ⅻ·ⅩⅢ지구) 발굴조사완료 결과약보고서』.
-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 혁신도시 2구역 1차 유적 1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1, 『기장 명례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약보고서』.
- 한국문물연구원, 2009, 『機張 佐東里遺蹟』.

【국문초록】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내부구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수혈주거지의 형태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취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형태가 온전하게 확인되는 취락을 중심으로 기능과 특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계(원형, 타원형)와 방형계(방형, 말각방형)로 분류되며, 원형계 주거지가 21%, 방형계 주거지가 79%의 비율을 차지한다. 면적은 소형, 중소형, 중대형, 대형으로 분류되며, 소형 23%(8동), 중소형 40%(14동), 중대형 29%(10동), 대형 8%(3동)의 비율을 차지한다. 난방·취사시설은 I 식(상면식 노), II 식(벽로), III 식(온돌)으로 분류되며, I 식 3동(4%), II 식 62동(94%), III 식 1동(2%)으로 확인된다. 3가지 형식 중에서 II 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부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내 난방·취사시설의 전형적인 모습은 II 식(벽로)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 비교적 양호한 취락을 중심으로 취락의 유형을 분류한 후, 취락유형별 기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취락의 유형은 수혈주거지만 확인되는 단독취락, 수혈주거지와 지면·고상건물지가 모두 확인되는 취락,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가 확인되는 취락으로 분류된다. 취락유형별 기능은 수혈주거지만 확인되는 단독취락은 하층민들의 집단 마을과 묘막지, 수혈주거지와 지면·고상건물지가 모두 확인되는 취락은 생산과 관련된 공방지 또는 특수목적의 취락,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가 확인되는 취락은 임시거주의 목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부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지면·고상건물지, 취락유형

【Abstract】

**Study on structure and pattern of settlement to
pit-dwelling site in Joseon dynasty for the Busan district**

Hwang, Dae-II / The Ulsan Institute of Properties

In this study it's been examined the characters by analyzing the inner structure of Joseon's pit-dwelling sites in Busan district. And it's been classified settlement by patterns and reviewed the function, feature in centering around the settlement that it's ascertained intact.

It's grouped plane form of pit-dwelling sites into circle(circle, oval) and square(square, chamfered square) parties. It's confirmed that it's in possession of circle form party dwelling site 21%, square form party dwelling site 79%. It's divided according to the pit-dwelling area of the sites that 4 types are small size, small and medium size, medium and large size, large size. It's confirmed that it's in possession of small size 8houses(23%), small and medium size 14houses(40%), medium and large size 10houses(29%), large size 3houses(8%) and extra-large size 1house(1%). It's classified the sites into type-I (upper side - kiln), type-II (Wall - kiln), type-III (Ondol; Floor heating). It's confirmed that it's in possession of type-I 3houses(4%), type-II 62houses(94%), type-III 1houses(2%). It's so the highest percentage of type-II in equipments for heating and cooking that it's type-

II the typical equipment in Joseon's pit-dwelling sites in Busan district.

After dividing the Joseon's pit-dwelling sites in centering around the settlement that it's relatively intact in Busan district, the function and feature of each settlement pattern were analyzed. It's classified settlement pattern into single detached settlement group it's pit-dwellings alone, the other settlement group it's pit-dwellings and touched land · raised cottages of all, another settlement group it's pit-dwellings and raised cottages of all. It's confirmed function by settlement pattern that the single detached settlement group had been bunches in villages and hut site built near a grave of lower class people, that the second group had been workshop site in relation to particulate production or special purpose settlement, the third group had been settlement for a temporary residence.

Key words : Busan, in Joseon dynasty, pit-dwelling, touched land · raised cottages, settlement pattern

투 고	심 사	완 료
2012. 11. 2	2012. 12. 5	2012. 12. 15